민나노 일본어 중급 1 1~6과 독해문 해석

1과 18쪽

타타미

일본에 온 외국 여행자가 방 안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는 것은 타타미라고 합니다. 주거(시설)의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로서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타타미제(tatamiser)라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 타타미는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타타미가 지금처럼 방 전체에 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어도 방 바닥은 나무 판자였으며, 손님이 오셨을 때만 타타미를 두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방석처럼 쓰였던 것입니다. 쓰지 않을 때는 몇 장씩 겹쳐 두었기 때문에 「타타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타미」는 옛 일본말의 「타타무」에서 온 것으로, 겹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타미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구”였으므로,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접거나 해서, 하나의 방을, 손님이 왔을 때는 응접실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거실로, 낮에는 일하는 방으로 나눠 썼습니다. 지금도 타타미 방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른 짚과 [등심초](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93%B1%EC%8B%AC%EC%B4%88)로 만들어진 타타미는 호흡을 하므로, 방의 습기를 잡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타미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 맨발로 있으면 쾌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중에는 맨발로 타타미 위를 걸어다닐 수 있도로, 집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아키오카 요시오 감수 『발명발견 이야기 전집 15 건축의 발명발견 이야기 –

주거의 시작부터 미래도시까지』 고쿠도샤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2과 38쪽

외래어

내가 미국에서 일본에 온지 벌써 5년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외래어가 서툴다. 가타카나 단어는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마치 우주인의 언어 같다.

우선 발음이 헷갈린다. 일본인은 영어와 같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친구 중에는 코-히-(커피)와 코피-(복사)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또, 구분하는 것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처음 일본에 왔을 무렵, 레스토랑에서 「밥 주세요」라고 했더니, 「라이스(rice)요」라고 하지 않겠는가. 「어드레스는?」이라고 묻길래,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상대가 깜짝 놀란 적도 있다. 「어드레스」는 일본어에서는 「메일 어드레스」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아포(appointment)」나 「프레젠(Presentation)」 쯤 가면,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다.

 요즘에는 「아이덴티티」나 「컴플라이언스」 같은 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사용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예를 들면 흔히 「폴리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방식」이나 「하는 방식」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알기 쉬운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외래어를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널리 쓰고 있는 「셔츠」나 「PC(파소콘)」 등을 이제 와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래어는 일본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과다 사용은 좋지 않다. 「밸런스」가 잡힌 사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과 60쪽

시간아, 멈춰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 한 시계 회사가 20세의 남성/여성 516명에게 『시간』의 의식에 대하여 앙케트 조사를 했습니다.

 대답에는 2가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복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 또 하나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나 이외의 시간이 멈춰준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시간이 멈추는 것은 똑같지만, 전자의 대답은 여성, 후자의 대답은 남성에게서 많이 보였습니다.

 또, 「디즈니랜드에 있을 때」「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때」라고 대답한 것은 여성뿐. 하지만 남성도 여성도 1위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로, 역시 20세는 사랑의 계절인가 봅니다.

신성인(새롭게 성인이 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식 앙케트

① 연인과 함께 있을 때 ② 잘 때

③ 행복을 느낄 때 ④ 실패했을 때

⑤ 시험을 치를 때 ⑥ 죽을 만큼 바쁠 때

⑦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⑧ 늦잠 자서 지각할 것 같을 때

⑨ 친구와 있을 때 ⑩ 위험을 느낄 때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가족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세이코 홀딩스 (주) 「신성인(새롭게 성인이 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식 앙케트 조사 2004」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4과 84쪽

전화 거부자(전화를 싫어하는 사람)

전화 거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일본의 작가 나츠메 소세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영국의 H. G. 웰스 등도 전화를 싫어했다고 한다. 전화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과 작가 마크 트웨인 사이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벨은, 자신이 발명한 전화를 트웨인이 이용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트웨인은 전화를 매우 싫어했다.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 말 하고 싶지도 않은 상대와 억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참 실례되는 기계인 것이다.

 아무리 거절해도 끈질기게 권해오는 벨에게 화를 내며, 트웨인은 한 문장을 신문에 발표했다. 「하트퍼드 시민에게는 언제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것이지만, 벨에게만은 절대로 안 보낸다」라고.

 그로부터 며칠 후, 트웨인이 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친척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트웨인이 장례식에 출석하지 못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안 벨은, 바로 트웨인의 집과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를 전화로 접속하려고 말을 꺼냈다. 트웨인은 쉽사리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무료라고 하기에 연결하기로 했다.

 즉시, 전화기를 트웨인의 침대 옆에 설치되었고, 트웨인은 교회에 있는 출석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전화의 편리함을 맛 보았다. 「전화 요금을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트웨인이 말하자, 벨은 「요금은 됐으니, 나에게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체신종합박물관 감수 『일본인과 텔레폰』

「제5화 저쪽의 전화」 NTT 출판으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5과 106쪽

지도

지도 A는, 호주의 고등학교 교사 맥아더가 1979년에 만든 「남북을 거꾸로 한 세계지도」이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 미국인 유학생이 그린 세계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지도에는 호주가 없었던 것이다. 인간의 눈은 관찰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보다 약간 위쪽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아래쪽은 노력해서 보고자 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미국인 유학생의 의식에서 잊혀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맥아더가 스스로 만든 것이 지도 A이다.

 지도는 보통, 북쪽을 위로 해서 그려진다. 그렇다면 왜 북쪽이 위여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도에 경/위도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착된 습관으로, 옛 지도에는 남쪽이 위에 있는 것도 많다.

 북쪽이 위라는 상식은, 실은 북반구 나라의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차별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 지도 B는 남북을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놓고 만든 것이다. 이것이라면 적어도 북반구 사람들도 남반구 사람들도 불만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어떨까? 「위치의 평등」은 어렵다.

(모리타 타카시 『신의 눈 새의 눈 개미의 눈 지도는 자아 찾기의 꿈의 공간』

마이니치신문사으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

6과 128쪽

멘탈 트레이닝

 한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 도쿄에 막 나왔을 무렵, 자신의 장래가 불안해지면 아파트 방에서 자주 기자회견 놀이를 했습니다. 성공한 자신과 잡지 기자를 혼자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소설이 안 팔릴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그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유명작가가 된 셈 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양배추만 먹었지만 마음은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라던가, 『세상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라던가. 혼자서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장래의 꿈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최근, 다양한 곳에서 열리고 있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멘탈 트레이닝에서도, 이것과 같은 것을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장래에 되고 싶은 자신을 떠올린 후, 자신이 그것이 된 셈 치고, 그 시점에서 현재의 자신을 보는 트레이닝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 주십시오. 머리 속에 구체적인 이상적인 자신이 떠올랐다면, 서 있는 위치를 바꿔, 현재의, 즉 이미지 속에서는 과거가 된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래의 이상적인 자신이 보았을 때, 현재의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도전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꿈과 이상은 점점 가까워져 올 것입니다.

(키무라 타카시・후지타 칸지・타카하시 케이지

『비즈니스맨・성공의 조건 마음과 뇌를 강하게 하는 멘탈・트레이닝』

PHP연구소로부터, 일부 수정 후 게재)